

보도시점

2024. 7. 11.(목) 06:00
7. 11.(목) 석간

배포

2024. 7. 10.(수) 16:00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확산 방지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점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6.15.)에 이어 안동시(7.2.), 예천군(7.6)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라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 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북 4개 시군(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 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 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올해 경북 영덕군(39차, 1.15.), 경기 파주시(40차, 1.18.), 강원 철원군(41차, 5.21.), 경북 영천시(42차, 6.15.)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도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남하·서진하는 등 멧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경북도는 물론 전국 어디라도 아프리카돼지

열병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박순성 (044-201-2563)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승진 (044-205-6190)
		담당자	서기관	유용철 (044-205-6192)

